

##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대한항공 이사 재선임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사진)이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대한항공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 대한항공은 26일 오전 서울 강서구 본사서 진행된 주주총회에서 조원태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82.84%의 찬성률로 의결했다. 앞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아시아나 인수계약 체결 과정의 실사 미실시 등을 들어 반대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 고려사이버대 “창의적 융합 인재양성 목표”

# 고려사이버대, 온택트 시대 ‘융합교육 특화’ 국내 최고

100% 온라인 수업으로 학위 취득가능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4차산업시대교육 제2의 진로 설계 성인학습자들에 각광



김진성 총장

최근 ‘온택트’ 시대 흐름 속에서 온라인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사이버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20여 년의 경험과 노하우로 대한민국 온라인 교육을 선도하는 고려사이버대는 재직학생이 1만여 명 이상인 4년제 정규 대학이다.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융복합 강의콘텐츠를 제작하는 한편 고려대 등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꾸준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 ●100% 온라인 수업으로 학·석사 취득

고려사이버대의 가장 큰 강점은 온라인으로 학위 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필요시 실습, 특강 등 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학위 취득에 필요한 전 과정은 100%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학습자는 시공간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학업에 전념할 수 있다.



‘온택트 시대’를 맞아 사이버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고려사이버대는 100% 온라인 수업으로 학사는 물론 석사학위까지 취득이 가능하며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융복합교육과정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고려사이버대의 온라인 강의 콘텐츠 제작 모습. 사진제공 | 고려사이버대

### ●4차 산업혁명시대 ‘융합’ 강의 특화

고려사이버대는 4차 산업혁명에 특화된 교육 과정을 개발·운영한다. 미래학부(빅데이터 전공, 인공지능 전공, 신산업기술경영 전공)에서는 공학계열과 인문사회계열을 포괄하는 융복합 교육 모델을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빅데이터 전공에서는 머신러닝 기반의 빅데이터 기획, 처리, 분석, 활용을 다루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빅데이터 프로그래머, 데이터 기반 마케팅 전문가 등을 양성한다. 사이버대 최초로 개설된 인공지능 전공에서는 인공지능(AI) 관련 알고리즘 및 서비스

### 교육을 통해 인공지능 전문가를 키운다.

신산업기술경영 전공에서는 4차 산업 분야의 연구개발(R&D)과 비즈니스 모델 개발, 전통산업과 4차 산업 신기술 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사업 창출에 대해 다룬다. 미래학부생은 전공 간 경계를 넘나들며 자유롭게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고 최대 3개 학위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다. 유연한 학사제도의 일환으로 도입한 융합전공(소프트웨어교육 전공, 코칭 전공, 국방기술 전공, 크리에이티브 전공)도 주목할 만하다. 김진성 총장은 “재학생들이 주 전공과 함께 전문분야에 특화된 학위를 추가로 취

득할 수 있는 미래형 전공 제도로, 학제 간 연계를 통해 사고의 확장과 다양한 진로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한국의학재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장학금 제도를 통해 소득분위에 따른 등록금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내외 장학제도로 협약 기관 소속 공무원, 직장인, 군 위탁생, 다문화가정 이주민, 고려대 졸업자 등은 입학금, 등록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재학생은 고려대의 각종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다. 고려대 인암캠퍼스 내 도서관 자료를 열람할 수 있으며 고려대의료원(안암, 구로, 안산병원)과 장례식장, 아이스링크 이용 시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고려사이버대는 6월 초 후기 입시를 시작한다. 대학원의 경우 매년 12월 경 신입생을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cu.k.edu)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go.cuk.edu), 대표전화(02-6361-2000)를 통해 입학 및 학과 상담이 가능하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 “한국적인 맛으로 세계 공략”...농심 창업주 故신춘호 회장의 경영철학

## 국내 생수 브랜드 최초 ‘무라벨’ 제품 롯데칠성 ‘아이스8.0’ 친환경 선두

“최고의 품질과 글로벌 경쟁력 중요” 창립 초기부터 연구개발 투자 강조 신라면·새우깡 등 직접 브랜드링 나서



故 신춘호 회장

27일 향년 92세로 별세한 농심 창업주 고 신춘호 회장의 경영철학이 주목받고 있다. 독자기술로 개발한 한국적인 맛으로 세계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농심을 국내 1위 라면 업체로, K푸드의 초석을 일군 글로벌 기업으로 이끌었기 때문이다.

### ●스스로 서야 멀리 갈 수 있다

신 회장은 롯데 창업주인 고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의 둘째 동생으로 일본에서 활동하던 신격호 회장을 대신해 국내 롯데를 이끌었다. 1965년 라면 사업 추진을 놓고 형과 갈등을 겪으면서 라면 업체 롯데공업 설립을 결심했다. 1978년 롯데공업의 사명을 농심으로 변경하면서 롯데와는 완전히 결별했다. 농심이라는 사명은 ‘이농심행 무불성사(以農心行 無不成事)’의 줄임말로 ‘성실과 정직으로



품질제일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조하며 농심을 국내 1위 라면업체로, K푸드의 초석을 일군 글로벌 기업으로 이끈 고 신춘호 농심 회장의 경영철학이 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1982년 사발면 출시 당시의 사석회의 모습. 가운데가 신춘호 회장이다. 사진제공 | 농심

행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농부의 마음이 담겨 있다.

신 회장은 ‘스스로 서야 멀리 갈 수 있다’는 철학 아래 창립 초기부터 연구개발 투자를 따로 두고 독자적인 기술로 제품을 개발해 왔다. 평소 “연구개발 역량 경쟁에서 절대 뒤지지 말라”며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려다도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 것을 강조해왔다. 1965년 라면 사업에 진출하면서 “한국인에게 사랑 받는 라면은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자립을 강조하고, 1971년 새우깡 개발 당시에도 “팬팡에서 시작하지만 우리 기술진이 힘들겠지만 우리 손으로 개발한 기술은 고스란히 우리의

지적재산으로 남을 것”이라며 연구자들을 독려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 ●‘제품명 짓는 회장님’, 남다른 브랜드 감각

신 회장은 신제품에 재치있는 브랜드 색을 입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유기그릇으로 유명한 지역명 ‘안성’에 제사상에 오르는 ‘탕’을 합성한 안성탕면, 짜장면과 스파게티를 조합한 짜파게티, 어린 딸의 발음에서 영감을 얻은 새우깡 등 농심의 역대 히트 작품은 모두 신 회장의 손을 거쳤다. K라면의 간판인 신라면도 그의 작품이다. 1986년 신라면 출시 당시 발음이 편하고 소

비가 쉽게 주물할 수 있으면서 제품 속성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신라면을 밀어붙였다. 그는 “저의 성씨를 이용해 라면을 팔아보자는 게 아니다”며 “때우니까 간결하게 ‘매운 신(辛)’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신 회장의 마지막 작품은 지난해 10월 출시한 옥수수깡이다. 그는 “원재료를 강조한 새우깡, 감자깡, 고구마깡이 있고 이 제품도 다르지 않으니 옥수수깡이 좋겠다”고 했다.

### ●최고의 품질로 세계 속 농심을 키워라

신 회장은 임직원에게 “거짓없는 최고의 품질로 세계속의 농심을 키워라”라는 마지막 당부의 말을 남겼다. ‘품질제일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조해온 그는 마지막 업무지시로 품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짚으면서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에 그치지 말고 체계적인 전략을 가지고 세계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또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며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진행 중인 미국 제2공장과 중국 칭다오 신공장 설립을 마무리하고 이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 글로벌 식품기업으로 발돋움할 것을 주문했다. 정정욱 기자 jay@donga.com

비자가 쉽게 주물할 수 있으면서 제품 속성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신라면을 밀어붙였다. 그는 “저의 성씨를 이용해 라면을 팔아보자는 게 아니다”며 “때우니까 간결하게 ‘매운 신(辛)’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신 회장의 마지막 작품은 지난해 10월 출시한 옥수수깡이다. 그는 “원재료를 강조한 새우깡, 감자깡, 고구마깡이 있고 이 제품도 다르지 않으니 옥수수깡이 좋겠다”고 했다.



롯데칠성음료의 ‘아이스8.0’(사진)이 국내 생수시장에 친환경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1월 국내 생수 브랜드 최초로 페트병 몸체에 라벨을 없앤 ‘아이스8.0 ECO’ 1.5L를 선보였다. 라벨을 떼어 내는 번거로움과 라벨 사용량을 줄이고 페트병 재활용 효율은 높은 친환경 제품이다. 6월 500mL, 2L 제품을 추가로 출시해 국내 무라벨 생수의 저변 확대에 기여했다.

지난달 환경부와 ‘상표피 없는 투명페트병 사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묽은 포장용으로 생산되는 아이시스 ECO(1.5L, 2L)의 페트병 마개에 부착된 라벨을 없앴다. 수원지, 무기물 함량 등이 표기된 생수 마개의 라벨을 없애 비닐 폐기물이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묽은 포장용 제품은 라벨을 완전히 제거하고, 날개 판매용 제품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병마개에 라벨을 부착한 형태로 운영한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묽은 포장재 디자인은 새 단장하고 브랜드 차별화에 나섰다. 소비자가 무라벨 생수임에도 아이시스 브랜드를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게 상징적인 분홍색 및 파란색을 주 색상으로 활용하고 로고를 크게 노출시켰다. 롯데칠성음료 측은 “아이스8.0은 pH 8.0의 약알칼리성 천연광천수를 활용한 건강한 물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생수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다”며 “친환경을 위한 다양한 포장재 개선 활동에 앞장서며 친환경 생수 브랜드로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 “식품도 명품만 팔리는 시대”...故신춘호 회장의 어록들

27일 별세한 신춘호 농심 회장은 ‘품질제일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조하며 농심 경영의 초석이 될 만한 발언들을 남겼다. 고 신춘호 회장의 주요 어록을 모았다.

▲ “한국에서의 라면은 간편식인 일본과는

다른 주식이어야 하므로 값이 싸면서 우리 입맛에 맞고 영양도 충분한 대용식이어야 한다. 이런 제품이라면 우리의 먹는 문제 해결에 큰 몫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범국가적인 혼분식 장려운동도 있으니 사업전망도 밝다”(1965년 창업당시 라면시장 진출을 선언

하며) ▲ “농심 브랜드를 그대로 해외에 가져간다. 얼큰한 맛을 순화시키지도 말고 포장 디자인도 바꾸지 말자. 최고의 품질인 만큼 프리미엄의 이미지를 확보하자. 한국의 맛을 온전히 세계에 전하는 것이다”(1990년대 해외 수출 본격화 당시) ▲ “식품도 명품만 팔리는 시대다. 까다로운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2010년 조회사) ▲ “돌이켜보면 시작부터 참 어렵게 꾸려왔다. 밀가루 반죽과 씨름하고 한여름 가마솥 앞에서 비지땀을 흘렸다. 내 손으로 만들고 이름까지 지었으니 농심의 라면과 스낵은 다 내 자식같다”(저서 ‘철학을 가진 정어는 행복하다’ 중)